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5, pp.361-373
<https://doi.org/10.29212/mh.2025..135.36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지구적 『냉전』에 대한 한국적 시각

오드 아르네 베스타 지음, 유강은 옮김, 옥창준 해제.

『냉전: 우리 시대를 만든 냉전의 세계사』 (파주 : 서해문집, 2025).

양준석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1. 들어가며

베스타(Odd Arne Westad)의 『우리 시대를 만든 냉전의 세계사, 냉전』(이하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이념 대립과 패권 경쟁으로 시작된 냉전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확대되고 심화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역작이다. 이 책은 19세기 말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변화에서 출발하여, 유럽의 분단, 제3세계에서의 갈등, 핵무기 경쟁, 데탕트 시대를 거쳐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언에 이르기까지 냉전의 주요 사건과 흐름을 상세하게 다룬다. 특히, 베스타는 냉전을 단순히 두 초강대국의 대립으로 보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냉전이 어떻게 변형되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냉전』은 냉전이 이념적 대립뿐만 아니라, 초강대국들의 영향력 확대와 각 지역의 민족주의 운동, 탈식민주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베스타는 미국의 개입과 소련의 영향력 확대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으며, 냉전이 현대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또한 냉전의 종식은 서방의 압박과 더불어 동유럽의 변화 그리고 소련 내부의 모순과 개혁 노력의 복합적인 결과임을 강조하며, 냉전 이후 세계가 여전히 냉전의 유산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베스타는 “냉전의 유산은 절대적 이분법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국제체계의 관점에서 공정히 말하자면 적어도 이 충돌은 해롭지 않았고, 유럽 대다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냉전의 대결 자체도 평화롭게 끝났다”¹⁾고 언급하며, 냉전 전반에 대한 여러 새로운 관점도 제시한다.

종합적으로 『냉전』은 냉전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며, 단순한 사건 나열을 넘어 냉전의 기원, 전개, 종식 그리고 그 유산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그럼에도 이 책은 냉전의 지구적 확대와 미국과 소련 중심적인 해석 간 간극, 한국을 비롯한 약소국들의 복합적인 주체성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는 한계, 냉전이라는 거대한 비극에 대한 총체적 성찰과 역사적 평가의 지점에서 고찰의 여지를 남긴다.

1) 오드 아르네 베스타 지음, 유강은 옮김, 옥창준 해제. 『냉전: 우리 시대를 만든 냉전의 세계사』 (파주 : 서해문집, 2025), 14-15쪽.

2. 『냉전』에서 펼쳐진 냉전

『냉전』에서 베스타는 전반적으로 균형감을 잃지 않고, 냉전기 지구적으로 펼쳐진 사건과 문제들의 배경과 흐름을 자신의 시선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선 그는 유럽을 무대로 한 이념적 대립을 통해 냉전을 재구성해간다. 냉전은 미국에는 대서양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고, 소련에는 공산주의 이념의 확대였다. “미국의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개인의 자유와 헌법질서, 미국적 생활방식을 지키기 위한 싸움”²⁾이었고, 미국은 이러한 원칙과 관점을 유지하려 했다. 베스타는 연합군이 스탈린의 공산화 의지를 간과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한다. 알타회담이 끝나고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는 “폴란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진행했다 말했고, 처칠(Winston Churchill)은 “스탈린은 세계와 폴란드에 선의가 있”기 때문에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이라 믿었다.³⁾ 미국인들은 동유럽에서 보이는 소련의 팽창주의를 나치의 팽창주의와 유사하게 보았다. 특히 베스타는 철의 장막이 그어진 냉전의 상황과 달리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인들이 동구와 서구의 경계선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소련의 팽창전략 목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측면을 강조한다.

이 책은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스탈린의 잔혹성과 더불어 유럽의 동부 지역에 대해 소련이 가진 야심과 계획, 기만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술한다. 잔혹한 스탈린은 제2차 세계대전 중 50

2) 베스타 (2025), 91쪽.

3) 베스타 (2025), 85쪽.

만 명 이상 독일계 소련인을 동부로 추방했고, 무슬림 100만 명이 캅카스와 크림반도에서 추방했으며, 1950년대 굴락에서 관리하는 소련 인구는 250만 명이었다. 1936년에만 최소 30만 명의 자국민을 처형한 스탈린은 카틴 숲에서 폴란드인 2만 2천 명을 처형했다. 폴란드에 대한 잔혹한 인권 유린은 스탈린에게 있어서 “살아남은 폴란드 장교의 수가 적을수록 소련이 이 나라를 장악하기에 유리하다고 파악”⁴⁾한 단순한 공산주의 확장의 논리였다. 서유럽이 미국에 의해 마샬플랜과 나토를 활용하여 재건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을 때조차도 소련은 자국을 비롯해 발트 3국과 동유럽에 서구로부터의 자유를 통제하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공산주의를 강화해갔다.

『냉전』은 ‘서구’라는 개념이 1950년대부터 미국과 서유럽 간 군사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상호작용이 가속화되면서 비로소 발생한 의미임에 주목한다. 서유럽의 변화는 주로 미국에 의해 경제적 조건이 확보된 상황에서 안보적 배경까지 주어지며 가속화되었다. 서구가 수호하는 자유라는 가치에 대항해 동구에서 공산당은 ‘민족’ 혁명을 주장했지만, 결국 이 혁명은 민족이 아닌 공산주의 발전을 위한 전략이었다. 또한 모든 공산권에서 초기 공산당은 소수 정당이었지만, 감시와 무력을 활용하여 국가 지배를 완료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하지만 베스타는 공산정권기 여성의 지위에서의 두드러진 변화를 포착하기도 한다. 공산권 여성들이 가부장적 전통에서 억눌려 있었으나, 공산당의 여권 신장 정책에 따라 신분에 변화가 생긴 점도 주목한다.

『냉전』의 중요한 특징은 냉전이 단순히 유럽에서 벌어진 미국과 소련 간 충돌이 아닌 전 지구적 현상임을 밝힌다. 냉전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전역의 사건들에 깊고

4) 베스타 (2025), 91쪽.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제3세계는 단순한 냉전의 전쟁터가 아니라 냉전의 적극적인 참여자였음도 밝힌다. 1920년부터 60년간 중국에서 전쟁이나 대량학살의 결과로 7,700만 명이 죽음을 맞았다는 통계치는 중국 공산당의 잔혹함을 잘 나타낸다. 중국에서 공산주의는 완고한 이념으로서 보다 “나라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낡은 중국”을 벗어나 “현대적이고 부유한 나라”를 창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⁵⁾ 이러한 중국 공산주의는 소련의 개혁지원을 통해 더욱 완고해지고, 결국 대약진 운동으로 이어지며 1961년까지 과로와 식량부족으로 최소 4,000만 명이 사망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문화대혁명에 대한 베스타의 분석 역시 주목할 만하다. 문화대혁명은 위에서 본다면 동유럽과 같은 공산주의 숙청의 한 갈래였지만, 아래에서 본다면 혁명이라는 대의를 내걸고, “개인적 원한과 열망을 풀어내는 살풀이 판”이었다.⁶⁾ 이러한 역설은 혁명적 이상과 발전을 기치로 내건 공산주의-전체주의의 무한한 권력이, 결국 인간 내면의 사적 원한과 야만의 도구로 전락하는 비극적 실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베스타의 서술에서 제3세계로 확장되는 냉전은 더 이상 선악적 구도를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6·25전쟁, 베트남전쟁이 전개된 지역은 강대국들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며 냉전 구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앙골라 내전, 콩고 위기 등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단순히 강대국들의 영향력 아래 놓인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념적 지향과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며 냉전에 영향을 미쳤다. 쿠바는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직접 앙골라 내전에 개입하여 공산권의

5) 베스타 (2025), 336-337쪽.

6) 베스타 (2025), 361쪽.

영향력을 확대했다. 라틴 아메리카의 쿠바혁명, 니카라과혁명의 핵심 행위자들은 미국의 영향력에 저항하며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이거나 독자 정치노선을 추구했다. 쿠바는 친소 루트로 미국의 궤적에서 벗어나려 했고, 니카라과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뤄냈다. 베스타는 미소 대립의 냉전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인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의 결과였고, 제3세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주장한다.

베스타는 냉전을 통해 두 가지 심대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신생 국가의 탄생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지배적인 세계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것”⁷⁾이라며 미국적 단극질서의 도래를 설명한다. 냉전의 후반기 헝가리인이나 체코슬로바키아인에게 동유럽인이라는 정체성은 점점 약해졌고, 그들은 다시 중부유럽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77헌장을 발표하며 반체제적 움직임을 확대했고, 1980년대 폴란드에서는 파업이 이어졌으며, 헝가리는 서유럽과 비교적 자유롭게 여행과 경제교류를 진행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통합과정의 가속화를 견인하는 요인들이었다. 대내외적 모순이 산재한 소련은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과 견줄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러한 기술의 격차는 단순히 기술력이 아닌 기술이 생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능력과 매력적 문화를 미디어로 끌어낼 수 있는 유연한 체제, 곧 자본주의 시장이 가져온 결과였다. 『냉전』에서 냉전의 종식은 단순히 서구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서방의 정책을 넘어서 동구 공산권 내부의 요인에 의해 주도된 복잡한 과정과 돌이킬 수 없는 변화로 인한 것이었다.

7) 베스타 (2025), 21쪽.

3. 『냉전』, 지구사적 접근이 남긴 논쟁점들

『냉전』 전반에 흐르는 베스타의 시선은 무엇일까? 냉전의 기간을 100년으로 확장한 베스타는 전 지구적 규모에서 일어나는 상호 간 연결과 작용에 기초해 지구사(Global History)적 관점을 이 책 전반에 유지한다. 그 과정에서 서구 중심적 시각을 넘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냉전기 어떻게 이념적 상호작용이 나타났는지 주목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냉전을 바라보는 지구사적 관점은 냉전의 양극체제, 즉 미국과 소련 중심적 시각을 더욱 강화하거나, 제3세계 또는 저개발국가가 내부적으로 지닌 역동성을 간과함에 따라 몇 가지 비판점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베스타는 냉전을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거대 이념의 충돌이 세계적 갈등을 추동했음을 강조한다. 물론 갈등의 핵심에 이념적 간극이 중요하게 작동했지만, 지리적 여건뿐 아니라 역사적 배경에도 차이가 있는 각국의 모든 대외 정책과 전략이 이념적 동기만으로 구성될 수 없다. 각국의 정책은 국가 안보, 경제적 이익 등 현실적인 고려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냉전 대결을 추동한 미소 관계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스탈린은 연합국을 불신했지만, 연합국의 지원에 생존을 의지한 측면이 있다. 이는 전쟁 후 연합국과 협력을 이어가려는 스탈린의 구체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며, 단순히 이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적 계산이 외교정책 기저에 존재함을 보여준다.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복잡한 국내 정치의 역학, 엘리트 집단의 이

해관계, 그리고 다양한 대내외적 행위자들의 영향 속에서 발현된다. 베스타의 접근은 주로 이념 자체의 작동 방식과 미국과 소련이 주변국들과 갖는 이념적 연결성에 집중하면서 개별 국가가 갖는 정치적 복잡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냉전』의 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지구적 사건이 갖는 발단, 전개 그리고 결말은 냉전의 이념대립에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 미국과 소련 모두 냉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권위주의 정권을 지지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민주주의 운동을 약화해 나간다. 결국, 이 책에서 약소국 및 제3세계는 주체성을 갖는 자주적 행위자로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대서양현장을 통해 민족자결을 공식화했고, 식민지의 탈식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였다. 하지만 동시에 1945년 이후 소련과의 경쟁에서 유럽의 쇠락은 치명적이었기에 미국은 유럽의 식민지를 붕괴시키지 않고, 20~30년간 유럽의 강대국 위상을 유지했다고 베스타는 지적한다. 제3세계 국가들은 초강대국의 질서에 포섭되어 주체적 행위자로서 작동하기 어려웠다. 이 책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공산주의에 대한 강박감이 심화하고, 쿠바혁명, 과테말라 개입 등을 통해 미국과 군사정권의 긴밀한 관계를 서술한다. 결국, 냉전이 라틴 아메리카 엘리트와 미국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어느 쪽도 이익이 없는 “억압 공생체계”를 구성했음을 지적한다.⁸⁾ 미국은 “반공 우선순위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의 폭력적 상황에 상당히 이바지하며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 측면도 베스타는 강조한다.⁹⁾

『냉전』의 전개는 약소국이 냉전의 구도 안에서 어떻게 제약받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베스타는 냉전사의 서구 중심성 극

8) 베스타 (2025), 482쪽.

9) 베스타 (2025), 512쪽.

복을 위해 약소국과 제3세계를 냉전의 ‘대리 전장’이 아닌 역동성 존재로서 지구사의 범주에 포함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주변 행위자에 대한 분석이 심화할수록 그 분석은 미소 중심의 냉전 질서가 전 세계에 미친 압도적인 영향력을 더욱 부각하는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베스타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의 영향력 아래에서도 약소국들은 독자적인 이념과 전략을 가진 행위자였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베스타를 포함한 서구 학자들의 이념 분석은 일반적으로 서구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의 권위주의적 경제발전 과정이나 강력한 반공주의 체제는 민주주의의 목표와 이상에 상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전쟁과 발전에 대한 베스타의 서술은 서구 학자들의 전형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6·25전쟁에 대한 발발 배경과 과정을 기술하며, 베스타에게 있어서 ‘정적을 탄압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진압한 이승만(李承晩)’과 ‘국제적 공모를 준비한 김일성(金日成)’이 개시한 전쟁의 결과는 무엇일까? 베스타는 “한국인에게 전쟁은 민족 재앙이었고, 전쟁이 남긴 상흔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으며, 그 비참함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제6장 한반도의 비극> 장을 맺는다.¹⁰⁾ 이후 책의 후반부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은 다른 아시아 발전국가들과 유사한 형태인 미국의 지원으로 진행된 정부의 철권통치와 개발독재로 진행되었음을 최소한의 분량으로 언급할 뿐이다.

이러한 베스타의 한국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이 책을 통해서는 6·25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의 국가적 정통성이 훼손된 부분을 파악할 수 없다. 베스타는 이승

10) 베스타 (2025), 262쪽.

만의 대한민국과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배경과 충돌, 소련의 개입과 중공군의 참전 과정, 3국의 국제적 공모, 6·25전쟁의 전개 과정 그리고 이에 대응한 유엔군사령부의 성공적 구성과 유엔 16개 회원국의 참전과정에 대해서 나열한다. 하지만 베스타는 이 전쟁이 유엔한국감시위원단의 감독 아래 5.10총선으로 정통성을 인정받고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산진영의 침략이라는 사실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각각 초강대국에 의해 축복을 받”은 1948년 8월과 9월에 선포된 두 국가가¹¹⁾ 이념 대립으로 인해 전쟁의 비극을 겪었다는 부분이 강조될 뿐이다.

둘째, 베스타는 한국의 6·25전쟁 이후 미국 및 자유 진영의 지원, 한미동맹을 통한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미국의 후원 아래 독재 체제가 수행됐다는 짧은 서술로 대체한다. 그러나 북한과의 전쟁 과정에서 형성된 한국에서의 반공은 강력한 생존 전략이자 국민 통합의 기제였고, 발전국가 모델과 상호작용하며 경제 성장을 추동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동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의 훼손이 발생했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베스타의 이념 대립에만 중점을 둔 기술로는 한국에서의 반공인식이 갖는 다층적 의미의 복합성과 역동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비판점은 이 책의 '해제' 역시 냉전의 시작과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베스타에게 '우문'일 것이라 기술되었지만,¹²⁾ 20세기의 거대한 비극에 책임을 묻지 않거나 양비론적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 역시 방기적 태도일 것이다.

『냉전』에는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모양의 아이러니가 그려지고 있고, 때로는 우화 같은 성찰을 주는 에피소드들도 등장한

11) 베스타 (2025), 239쪽.

12) 베스타 (2025), 894쪽.

다. 대표적 아이러니는 냉전체제 해체기 소련의 상황에 대한 기술이다. 잔혹한 역사를 가진 소비에트체제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지도자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개혁적이고 명민한 활약과 소련 공산당의 압박에서 벗어나 프라하의 봄을 지지했고,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비판했지만, 독재와 극심한 인권탄압을 했던 차우셰스쿠(Nicolae Ceaușescu)의 비극적 최후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베스타는 “고르바초프의 소련은 스탈린의 소련과 이미 전혀 다른 국가였다”¹³⁾라고 기술하며 후반부를 써간다. 1980년대 소련은 해외 영향력을 차단한 결과 세계 경제에서 고립되었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앙골라, 캄보디아 등지에서 소련을 압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5년에 등장한 54세의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고, 미국과의 레이카비크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국제적 변화의 모멘텀을 스스로 만들었다. 고르바초프의 공산당은 기업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고, 해외 기업의 합작 투자를 장려하는 방식으로까지 경제정책을 변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 카틴에서 벌어진 잔혹한 사건에 “소스라치게 놀란” 그는 비극적 사건에 유감을 표시했다.¹⁴⁾ 혁신적 개혁을 추구하는 고르바초프는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의 부패한 지도자들의 비타협적 태도에 “정말로 분개”한 상태가 되었다고 베스타는 기술한다.¹⁵⁾

이에 비해 미국의 냉전 전략은 변화를 거부하고, 자국의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배타적 모습으로 묘사된다. 냉전기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중동 등 제3세계에 대해 소련과의 경쟁적 상황에서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집착했다.

13) 베스타 (2025), 850쪽.

14) 베스타 (2025), 758쪽.

15) 베스타 (2025), 762쪽.

베스타는 미국은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독재정권과 자연스럽게 동맹국이 되었고,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며 대화를 거부했다는 기술에 집중한다. 또한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폭격으로 북베트남인 5만 명이 사망했고, 전쟁의 수렁 속에 빠지는 모습을 세세하게 기술하며, “미국이 개입할수록 지구 곳곳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지지가 극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 분명”했음을 강조한다.¹⁶⁾

『냉전』은 스탈린주의 시대의 대숙청,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주권 훼손과 군사개입, 중국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캄보디아 킬링필드에 걸쳐 지구적으로 자행된 공산주의 독재 권력의 폐해를 치밀하게 기술한다. 그런데도 이 책 후반부의 소련의 혁신적 상황에 관한 서술은 아마도 “냉전의 심대한 변화인 “미국이 지배적인 세계 강국으로 부상했다는”¹⁷⁾ 관점에서 국제문제 해결에 대한 더 큰 책임성을 미국에 부여한 측면이 있으리라 가늠해볼 수 있긴 하다.

『냉전』은 전체주의가 인간 삶의 바탕을 이념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일상적 차원에서 지구적으로 황폐화한 실상을 방대하게 기록한다. 그러나 책을 덮는 순간, 이 잔혹한 전체주의적 시도가 결국 어디로 귀결되었는지, 또는 20세기 위협받았던 인간의 존엄성, 민족의 자결,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들이 어떻게 대응했고 존속되었는지, 그리고 전체주의의 위협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평가나 지침을 제시받지 못한다.

16) 베스타 (2025), 475쪽.

17) 베스타 (2025), 475쪽.

4. 나가며: 냉전사의 성찰과 과제

베스타는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한 방대한 냉전사에 대해 거대 관점에서뿐 아니라 최대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개별 국가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프롤로그에서 그는 “내 주장은 냉전이 19세기 말의 전 지구적 변혁에서 탄생해 100년 뒤 거대하고 급속한 변화가 일어난 결과로 땅에 묻혔다는 것”이라 기술한다.¹⁸⁾ 즉,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탄생한 냉전이 지구적 규모로 확장되어 가고,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종식되는 과정에 대해 베스타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교차로 활용하며 조망한다. 결국, 냉전기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넘어선 지구적 접근이 냉전사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냉전』의 접근이 갖는 논쟁점들도 존재한다. 베스타의 『냉전』은 전 지구적 이념 대결에 초점을 맞추지만, 제3세계와 약소국들의 주체성과 복합적 간과되며 오히려 미국과 소련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해석으로 읽힌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통성과 발전의 역동성은 저자에게 주목받지 못했고, 결국 20세기 가장 거대하고 길었던 비극의 역사적 책임과 평가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채 마무리된다.

18) 베스타 (2025), 21쪽.